

CHAPTER 2. 수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1) '수시 대세 시대' 전략 수립부터 남달라야 한다

대입의 대세가 된 수시모집, 수험생이라면 1인당 6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수시모집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시모집에는 어떤 전형이 있고 각 전형별특징은 무엇인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위주 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적성고사전형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에는 주요 대 학에서 비중이 높은 학생부위주 전형과 논술전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은 학생부!

가장 먼저 살펴볼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대학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은 과거의 '입학사정관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따져 보면 다릅니다. 즉 과거 입학사정관전형은 지원자의 비교과 활동 등 스펙이 중요한 평가요소였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가 고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살펴보는 전형으로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평가하는 전형이지요.

2018학년도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대학 및 전형명	제출서류	면접 여부	수능최저 기준여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	○
서울대 일반전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	×
연세대 면접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	×
연세대 활동우수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	○

고려대 일반전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O	O
고려대 고교추천 II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O	O
성균관대 성균인재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선택)	X	X
성균관대 글로벌인재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선택)	X	X
서강대 자기주도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	X	X
서강대 일반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X	O
한양대 일반	학생부	X	X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O	X
중앙대 탐구형인재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O	X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선택)	O	X
경희대 고교연계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선택)	X	X

<표1>은 2018학년도에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보여줍니다. 제출 서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과거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포트폴리오 등 다채로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 방식이 자리 잡은 것이지요. 한양대는 자기소개서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는 학교 외에서 쌓은 스펙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외부 수상 경력, 외부 봉사활동 경력 등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이런 외부 스펙은 자기소개서에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사항을 언급하면 탈락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들을 입학사정관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줄을 세워 평가하는 정량평가가 아닌,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정성평가가 주된 평가 방식인 것이지요.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선 학생부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적용해 평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연세대의 학생부종합 (면접형)과 경희대의 고교연계전형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전형의 경우 1 단계 평가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반영해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외엔 대부분의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이 비슷한 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경우 대학과 전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고교연계)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들 대학과 전형은 면접이 없으므로 남들보다 더 우수하고 차별화되는 학생부를 갖고 있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지요.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학생부종합(면접형), 한양대 일반전형, 중앙대 다빈치형/탐구형인재전형,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면접을 치르는 대학이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신 면접이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면접에서 단순한 서류 기반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시문을 주고 답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내가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학생부교과전형, 면접도 실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를 주된 평가요소로 삼지만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주된 평가요소.

112 2018학년도 주요대학 학생부교과전형 평가 방법

대학 및 전형명	제출서류	면접 여부	수능최저 기준여부
고려대 고교추천 I	1단계: 학생부교과100 2단계: 면접100	O	O
한양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100	X	X
중앙대 학생부교과	학생부100(비교과30 포함)	X	O
이화여대 고교추천	1단계: 학생부교과100 2단계: 교과80+면접20	O	X
한국외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100	X	O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100	X	O
홍익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100	X	O
숙명여대 학업우수자	학생부교과100	X	O
국민대 학생부교과	1단계: 학생부교과100 2단계: 교과70+면접30	O	X
송실대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100	X	O
세종대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100	X	X

서울대와 연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연세대는 2017학년도까지만 해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2018학 년도부터 폐지했지요. 고려대의 고교추천 I 전형은 2017학년도까지 운영 되던 학교장추천전형이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교과 성적만을 100%로 반영해 선발하는 것과 달리 고려대, 이화여대, 국민대는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 해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100%로 반영하고 2단계에서 면접 성적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세요. 즉 아무리 내신이 뛰어나더라도 이들 대학에 진학하려면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이 100%이므로 결코 면접의 비 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대의 경우 학생부를 100%로 반영하지만 단순히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출결,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내역도 반영합니다. 한양대, 이화 여대, 국민대, 세종대를 제외하고 에 등장한 모든 대학들은 수능 최 저학력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학생부교과전형은 중복합격이 많은 전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의 가능성도 의외로 높습니다. 의외로 낮은 성적일지라도 합격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고3 수험생이라면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만 갖고 지원 이 어렵겠다고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 만전을 기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학생부교과전형에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논술전형 핵심은 수능과 논술고사

논술전형은 논술고사를 주된 평가요소로 두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성적 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 이나 교과전형으로 지원하기 힘든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지요. 특목고나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좋은 내신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특목고·자사고 재학생들이 주 로 지원하는 전형도 논술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주요대학 논술전형 전형 방법

대학	논술 반영 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인문	자연
연세대	70%	4개 등급합 7 영어2, 한국사3	4개 등급합 8 영어2, 한국사4
성균관대	60%	2개 등급합 4 영어2, 한국사4	2개 등급합 4 영어2, 한국사4
서강대	80%	3개 각 2등급, 한국사4	3개 각 2등급, 한국사4
한양대 (서울)	70%	없음	없음
중앙대	60%	3개 등급합 5, 한국사4	3개 등급합 5, 한국사4
이화여대	70%	3개 등급합 6	2개 등급합 4
경희대	70%	2개 등급합 4, 한국사5	2개 등급합 5, 한국사5
한국외대 (서울)	70%	2개 등급합 4, 한국사4	-
서울시립대	60%	없음	없음
건국대	60%	없음	없음

<표3> 의 논술 반영비율에 주목해보세요. 논술 성적이 논술위주 전형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에 이릅니다. 나머지 20~40%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렇게 비율만 볼 때는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적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연세대 학생부 등급간 차이를 보면, 1 등급과 7등급의 점수 차가 2점에 불과합니다. 성균관대는 3점에 불과하지요. 이렇듯 학생부를 명목상으로는 반영하고 있지만 기본점수가 크게 부여 되기 때문에 논술전형의 당락은 논술고사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에서 논술고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입니다. 대부분의 주요대학들이 논술위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술전형은 정시모집을 대비해 수능 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수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서는 논술전형이 많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워낙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논술고사 대비에 투자하기보 다는 수능 준비도 병행하는 학습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지원 대학 찾는 법은?

6월 모의평가가 기준!

수시 원서접수 전,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평 가전은 6월에 치러지는 수능 모의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월 모평 이 후에도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9월 모 평이 남아 있지만 수시 원서접수가 보통 9월 모평 직후에 시작되므로 9월 모평 성적으로 지 원여부를 판단하고 전형형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 때문에 성공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6월 모평을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6월 모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성적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 한 대학을 찾는 것입니다. 수 시 전형에서 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먼저 찾은 후 그 대학 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하지요.

자신이 받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 때까지 얼마나 더 상승할지 가늠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의 가세로 성적이 비약 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받은 성 적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받은 6월 모평 성적의 케이스 별로 어떻 게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6월 모의평가의 전 영역이 고르게 우수한 경우 정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수능 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시모집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확인하여 영역별로 학습 비중을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합 니다.

그 다음으로 내신 성적과 논술 역량을 판단해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생부위주 전형 지원을 고려 해야 합니다. 단, 상위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학생부 100%보다는 면접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높은 기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충족여부를 통해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교과뿐 아니라 비교과 영역의 비중도 큼니다. 비교과 영 역은 고3 때 급하게 쌓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고1, 2때 미리미리 이 력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고려대의 논술 폐지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전략을 수 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는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논술과 수능 최저학 력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활용도 필수!

더 중요한 9월 모의평가도 활용해야 하지요. 수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난이도 및 출제경향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의 실제 수능 성적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촉박한 일정이겠지만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수능 성적을 예측해 수시 전략을 세우면 정시 합격선 내 대학의 '수시납치'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대학에 지원해 단 6개뿐인 소중한 수시 카드를 허공에 날려버릴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결과를 수시 원서 접수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9월 모의평가도 6월 모의평가 활용법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하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합격을 부르는 수시 지원 첫 단계는 '정시'로 진학 가능한 대학의 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 듯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대학의 기준을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수시 지원 대학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6개의 수시 카드 중 '적정 지원' 또는 '안정 지원' 할 대학들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때 실제 수능 성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능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성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다 냉정하게 안정지원 대학들을 결정한 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1~2개의 수시 카드를 '소신지원' 하는 합리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원하려는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지 확인 하고, 자신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시모집의 '최종 합격'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9월 모의평가가 수능 성적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치러 온 모의고사 성적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모의 평가에서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이를 실제 수능 성적이라고 예단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일 것입니다. 특히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와 비교·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지난 6월 모의평가 성적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크지 않거나 상승 추이에 있는 학생이라면 다소간의 성적 상승을 고려해 소신 지원 카드를 늘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모의평가 성적이 6월 모의 평가 성적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크거나 하락 추이에 있는 학생이라면 성적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수시 지원 범위를 적정 또는 안정 위주로 정해야 합니다.

수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여름방학'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려면 철저한 서류 준비는 기본 중

에 기본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내신 성적을 높이고, 나의 자기소개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비교과 활동 내역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쏟아지는 수행평가,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로 인해 학기 초에 세웠던 목표의 반도 달성하지 못했다면 여름방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수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교과 내신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부족한 비교과 활동도 채워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선 학원보다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2학기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학원부터 등록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은 나의 학업 능력 향상 과정과 그 노력들이 오롯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런 방법으로 좋은 내신 등급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 그 과정에서의 나의 고민 등을 학생부에 담아낼 순 없고, 결과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차별화된 학생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3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1등급을 받은 학생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는 전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지원자의 내신 성적을 바라볼 때 지원자가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눈여겨봅니다. 단순히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것보다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차별화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나의 학생부 기록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방과후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되므로 교사가 학생을 좀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이런 환경에서 자유롭게 교사에게 질문하며 교과와 관련해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의문을 마음껏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이런 환경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일일이 관찰하며 교과 학습과 관련된 특이사항들을 학생부에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방과후 학교야말로 나의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들 최적의 기회인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방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을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비교과 활동이다 보니 급하게 봉사활동에 참가하거나, 대학 연계 진로활동에 참여하는 식으로 방학기간에 몰아서 비교과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비교과 활동을 하다보면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달에 달하는 여름방학이지만, 여러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하나의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비교과 활동은 '독서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른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활동임과 동시에, 교내 대회도 대비할 수 있어 학생부의 수상경력까지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대

한권으로 끝장내는 대입전략(월 알아야 대학가지!)

비도 가능합니다. 독서활동을 하며 배운 내용 중 특히 흥미로운 부분을 연구주제로 정하고,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활동을 통해 나만의 소논문까지 작성한다면 연구과제로도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비교과 활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독서활동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대학이 원하는 학생부종합전 형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duWho
Education Consulting